

사람사는 세상 2

1988년 4월 16일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화: 47-3711~2

정치1번지 동구를 민주화의 성역으로!!

노무현이 생각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란.....

부정축재자의 재산은 전부 몰수해야 한다.

전경환, 전두환, 이순자 그 밖에 권력자들에게 불어서 치부한 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한 것이다. 이 돈을 전부 몰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권력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한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권력진 자들이 재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뒷구멍으로 정치자금도 받고 먹고물도 챙기는 바람에 국민들 재산이 재벌손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들 돈을 도둑질 한 것이다. 국민들이 잘 사는 건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명의 재벌들이 온 나라의 돈을 다 쥐고 있는 이 잘못된 구조를 없애야 한다.

지역개발 덕분에 덕보는 사람은 재벌이나 복부인이 아니라 서민이어야 한다.

서울 목동재개발 때 서울시는 무려 1조원의 순이익을 남겼지만 목동에 살고 있던 재개발대상 주민들은 차가운 길거리에 쫓겨나야 했다. 지금 세상에 감정가대로 보상받아 이사갈 만한 집이나 땅이 어디 있는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에도 8 할은 돈이 없어 입주 못하고 입주한 사람도 월부금을 못내어 복부인에게 팔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지금까지 재개발공약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역개발은 잘 살자고 하는 것이지 서민대중 집 뺏아 복부인 배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허삼수 대령이 조폐공사 사장이었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허삼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민회관에 사람을 모아 놓고 만원짜리 지폐를 척척 나눠주고 선거사무실을 16개나 가지고 있는가? 오른말 해서 귀양살이 갔다는 데가 미국인데 서민은 꿈도못 꿀 미국에 처자식까지 다 불러모아 4년씩이나 살고 온돈은 다 어디서 났는가? 선거자금으로 쓴다는 몇십억원의 돈은 허삼수가 국민들 모르게 조폐공사라도 차려서 찍어낸 돈인가? 그 많은 선거운동원을 밥먹이고 일당주고 식당에 주민들 모아놓고 불고기 먹이는 돈은 다 어디서 났는가?



제2차 유세장:

4월 17일 · 2시
· 초량국교

제3차 유세장:

4월 23일 2시
성남국교

가자!
사람사는
세상으로!!
노무현 과 함께

②

통일민주당

44586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

허삼수, 서민대중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는데?

① 내란죄로 체포되어 무기수로 매일 반성문을 써야 할 민족의 반역자

1979년 12·12 군부쿠데타 사건 당시 대령이었던 그는 전두환·노태우(육사 11기)의 오른 팔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직접 체포하여 하극상을 일으켰다. 법대로 하자면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총살당하거나 적어도 무기수로 머리깎고 감옥에서 매일 반성문을 써야할 사람이 바로 허삼수다. 그는 육사 17기이다.



② 군사독재 정권을 만든 사람

우리나라 초유의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제5공화국의 기반을 잡아준 곳이 바로 국보위. 허삼수는 1980년 광주사태 1개월전에 이미 국보위 설치를 계획하고 정치인·학생·종교인·지식인을 수천명 투옥·고문하며 살인고문 정권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③ 남의 눈에 피눈물 낸 사람, 현대판 수용소 군도 삼청교육대 만든 사람

4,000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군부대에 넣어서 순화교육, 온갖 기압으로 고통을 주고 빼치카에 집어 넣어 질식시켜 죽이고 개를 풀어 물어죽이는 짐승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때 당한 사람들은 바른 말 잘하던 신문기사, 교사 노동조합 간부들이었다. 이것이 이른 바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의 실상이다. 이 삼청교육대의 설치를 맡은 곳이 국보위의 사회정화위이며 허삼수는 당시 사회정화위의 실무간부로 삼청교육대를 만든 인물이다.

반민정당 민주화운동에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함께
다같이 나섭시다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동구) 선거대책본부
전화 : 47-3711~2 · 3735~6 (부산일보~KBS사이)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 후원자원봉사대 연락소
전화 : 23-5511 · 47-4438

④ 국민의 눈과 귀 막은 사람

여당속의 야당, 강직한 바른 말 하다 귀양살이 갔다 하는데

허삼수는 장영자 사건때 전두환의 처삼촌 잡아 넣으라고 직언하다가 쫓겨났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장영자 사건은 1년 2개월 만에 터졌는데 서울 금융가나 사채시장에서는 몇달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고 허삼수는 육군중위때 부터 보안사에 들어가 군수사관으로 계속 일해 왔고 사건당시 세상의 부정을 조사하는 청와대 사정수석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그 사건을 몰랐는지 신문에 떠들어 대기까지 입을 꼭 다물고 숨겨 놓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실명제 거부로 쫓겨난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나!

민주인사 6.29가 있게 한 사람이 자기하는데

6. 29는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에서 독재정권과 싸워 받아낸 항복문서이다. 6. 29를 있게 한 사람은 허삼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요, 부산시민이다. 허삼수는 국민과 시민의 피와 눈물로 생취한 것을 자기가 한것처럼 꾸며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여당을 찍어야 지역발전이 있다는데

마치 여당을 찍어야만 지역개발이 된다고 떠들어 대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농촌은 도시보다 개발이 안되는가? 민정당에 표를 많이 주는 곳은 분명히 도시보다는 농촌이다. 여당말대로라면 농촌은 도시보다 몇배 잘 정비되고 지역개발이 잘 된 곳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잘살게 해준다는 민정당의 달콤한 말에 속아 표주고 그 덕택에 소값 파동으로 자살하고 농가부채만 늘어난 피폐한 농촌 살림.

표주고 나서 목숨까지 빼앗기는 살인무기 민정당의 지역개발론에 속지 말자!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기호 2 노무현